

제21차 자기부상철도 국제학술대회 폐막

자기부상철도 분야 세계최고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제21차 마그레브 2011 컨퍼런스'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3일부터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마그레브(Maglev)컨퍼런스'는 1977년 미국 보스턴 대회를 시작으로 매 2~3년마다 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자기부상철도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국제학술대회로써, 우리나라는 이번 대전 대회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이은 세 번째 개최국이 되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의 철도전문가 3백여명이 참석하여 7개 세션 9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공단은 이중 4편의 논문 공동저자 참여와 더불어 신교통사업처장의 '공단소개 및 KR연구원

신교통사업처가 수행중인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에 대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으로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음 대회 개최지는 2014년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루이다.

(KR연구원 방문진 기자)



충청, 실행위원회와 함께 열린마당 개최

- 혁신분야 추진현황 공유, 부진 대책 제시 -

충청본부(본부장 이양성)는 지난 13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5차 실행위원회 및 10월 열린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창의혁신/CS/윤리경영을 통합하여 개최하였으며, 평소 실행위원들만 참석하던 방식이 아닌 전 직원인 함께 하여 본부의 혁신분야 업무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열린마당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제 2개월여 남은 2011년도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체크하여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창의혁신과제 수행 및 실행이 부진에 대한 사유와 만회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수행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열린마당을 통해 그동안 충청본부에서 추진해 온 '5분 스피치'를 처음 시행했는데 첫 Speaker로 나온 배상환 부장은 케도PM부담담게 레일 제작 공정, 분기기와 선로 전환기에 대하여 전문가다운 면모를 과시하였다. 두 번째로 나온 강인순 과장은 그동안 CS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되살려 소통문화에 있어서 stroke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마지막 발표자인 차치희 과장은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는 주제로 한 시대를 살다간 인물에 대한 회고도 하게 되었다.

충청본부의 '5분 스피치'는 직원 상호간 소통문화 향상과 함께 대중 앞에서의 발표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8월 말에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스피치 skill-up'을 위한 공개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본부에서는 발표자가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발표과정에 대하여 본부 간부 직원과 MBB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캠코더로 촬영하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본인 스피치에 대한 부족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본부에서는 매월 열린마당을 통해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전문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발표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본부 홍성희 기자)



성과향상 워크숍 개최

- 담당자 실행과제 및 공통지표 의견 교환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처(처장 박인서)는 지난 13일 '11년도 상반기 부서 평가를 피드백하고 성과관리체계 교육을 위한 '성과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사 및 지역본부 성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11년도 상반기 부서평가 부진부서의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담당자의 성과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부서평가의 체계,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개인성과평가 프로세스, 지역건설·시설군의 위임지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본사 및 지역본부의 성과관리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행과제 및 공통지표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특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개편 후에 부서업무실적보고서 작성, CS·윤리 등 공통지표 평가시점 등이 부서평가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성과관리처는 금번 워크숍을 통해 모든 부서가 상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조정실 조원희 기자)



사랑의 독거노인 집수리 행사 시행

건설본부는 지난 14일 철도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도배, 연탄보일러 실 정비, 지붕 교체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건설본부는 앞으로도 본부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단 이미지 제고와 지역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계획이다.

(건설본부 박경홍 기자)



재가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기차여행기

충청본부(본부장 이양성)는 지난 13~14일 소외계층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정기봉사기관인 밀알복지재단의 재가장애인인과 '행복한 1박2일 지리산 기차여행'에 참여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1박2일 지리산 기차 여행을 다녀왔다.

이 행사는 외출의 제약으로 인해 문화적 기회 및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여가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간의 정보교환, 대인관계형성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람있는 기차여행이었다.

충청본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1박2일로 장애인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약간 부담을 느꼈지만, 이번 여행이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총42명(KR봉사단 5명, 장애인30명, 그 외 자원봉사자7명)이 함께한 이번여행은 첫째날 남원 허브체험마을에서 허브벨리관람 및 조별미션으로 밀알복지재단 인솔교사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 속의 미션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장애우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정신없이 미션장소를 찾다보니 어느새 첫 만남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로 이동하여 증기기관차를 탑승하였는데 많은 장애우분들은 옛 추억에 잠겨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턴 김진현



구례구 송원리조트에서 1박을 한 우리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로 예정되어있던 지리산 화엄사 관광 대신 리조트 안에서 조별로 즐거운 게임시간을 가지면서 취소된 일정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여유생태 박물관을 방문하여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수달을 감상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날 동안의 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번 1박2일동안 장애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나의 선입견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같이 웃고 즐기는 동안 그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내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봉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정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싶다.

가을 풍경속으로 빠지다, 팔공산 올레길

.....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길
 사과향 가득한 한 폭의 동양화같은 길
 가을 속으로 가까이, 더 깊숙이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산은 동구의 팔공산이다. 이곳에 산 이름을 가진 길기 좋은 길 '팔공산 올레길'이 있다. 제일 처음 문을 연 길은 2009년 6월에 만들어진 1코스 '북지장사 가는 길(5km, 약 2시간 소요)'이다. 이후 10월까지 매월 1개의 코스가 더해져 총 9개 코스가 팔공산에 생겨난 것. 이중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은 모두 8개의 길이다. 길은 산과 들, 계곡은 물론 구석구석 숨겨진 문화유적까지 아우르고 있다.

2코스 '한실골 가는 길'은 처음 마을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길이다. 아파트촌 사이로 옛 건물이 숨은 듯 자리하고 있는 이 길의 시작점은 신승겸 장군 유적지이다. 이 일대는 927년 신승겸 장군이 왕건과 함께 후백제의 견제와 목숨을 걸고 '공산전투'를 벌인 곳이다. '공산'은 팔공산의 옛 이름으로 신라시대에는 신라 5악의 하나인 '중악'으로 불리며 중요하게 여겨졌다. 김유신장군이 신라의 통일을 구상하며 수련하던 곳이라고도 전해진다.

4코스 '평광동 왕건길'은 달콤한 사과향 가득한 가을을 만나는 길이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도동 측백나무 숲을 지나면 4코스의 시작점인 효자 강순항 나무와 마주치게 된다. 그곳에서부터 신승겸 장군을 추모하는 모염재에 이르는 길은 왕건의 도피로로 추정되는 경사가 완만한 농로이다. 농촌마을의 푸근함을 느끼며 아이와 손잡고 걸어가기도 좋다. 특히 10월이면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와 지천이다. 깊어가는 가을날 붉게 익어가는 사과향기는 가는 이의 발을 멈추게 한다. 평광동 사과는 맛과 향이 우수하고 빛깔이 굵기가 유명해 한 입 베어 물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 안 가득 전해진다.

7코스 '폭포골 가는 길'은 오색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팔공산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길이다. 팔공산의 가을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숙이 느끼고 싶은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이 길을 걸어볼 것을 추천한다. 코스의 시작점인 탐골 등산로는 나무들이 뿔뿔이 솟아 있어 숲이 깊다. 그래서인지 이 길에는 버섯향이 가득하다. 그 향기를 따라 숲길을 한참 걸다 보면 공포의 '깔딱고개'와 맛따쁘리게 된다.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힘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처럼 2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야 하는 순탄치 않은 길이다. 하지만 마지막 계단을 밟고 정상에 올라서서 심호흡을 하는 순간 쌓인 피로가 확 달아나는 느낌을 누릴 수 있다. 청량한 가을바람과 맑은 공기가 지친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이다.

(레일&뉴스 유정우 기자)



- | | |
|---|--|
| <p>■ 시설운영본부 자산개발처 감정즉시원 결혼
 - 일시 : 2011년 10월 30일(일) 오후 1시
 - 장소 : 오피스(울리타워 20층) 라비젤</p> | <p>■ 설계기술실 기증사업처 이광도부장 장남혼
 - 일시 : 2011년 10월 23일(일) 13:30</p> |
| <p>■ 중앙기술단 공사차량부 감항욱기관사 장남혼
 - 일시 : 2011년 10월 30일(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천안 세종웨딩홀 3층 에메랄드홀</p> | <p>■ KR인재개발원 역량개발부 박성환과장 부친상
 - 발인 : 2011년 10월 18일(화)</p> |